

에벨리오 로세로의 『군대들』에 나타난 집단적 기억과 문학적 형상화*

유 왕 무

(배재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에벨리오 로세로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하며 콜롬비아의 부조리한 현대사를 고발한다. 그의 대표작 <군대들>에서도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는 개인과 집단의 욕망과 광기가 어떻게 분출되고, 그것이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헤치려 노력한다. 특히 콜롬비아의 폭력적 사회현상의 주역인 무장집단의 만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비이성적 사회구조의 실체를 고발한다. 그러나 작가 로세로는 이 소설에서 폭력 자체를 그리려고 하지 않는다. 폭력으로 인한 영향, 즉 폭력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 공포, 절망 등을 그리려고 한다. 그가 중시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이며, 희망을 잃어가는 주민의 절망이며, 절체절명의 순간에 발현되는 국가의 침묵과 무관심이다. 그러면서 폭력과 전쟁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을 질타한다. 폭력이 습관화되는 현실을 우려한다. 로세로는 갈등을 유발하는 무장집단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역사를 다시 기억할 것을 주문한다. 그래서 콜롬비아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콜롬비아의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희망한다.

주제어 : 콜롬비아 소설, 역사소설, 에벨리오 로세로, 『군대들』, 폭력소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3873)

1. 들어가면서

에벨리오 로세로(Evelio Rosero)는 1958년 3월 20일 콜롬비아 보고따에서 출생하였으나, 가족이 보고따 남서부 도스께브라다스로 이주하는 바람에 청소년기 대부분을 농촌 지역에서 보내게 된다. 그는 초, 중등학교를 가톨릭계 학교에서 다닌 관계로 사회문제에 대해 일찍 눈을 뜬다. 보고따로 돌아 온 그는 에스페르나도대학 ‘커뮤니케이션 언론학부’에 입학한다. 청소년기부터 글쓰기에서 남다른 재주를 보인 그는 일간지에 단편소설을 게재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20세인 1978년에 콜롬비아 ‘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하고, 이듬해인 1979년에는 『부재자들』로 콜롬비아 ‘단편문학상’을 수상한다. 이때부터 향후 그의 소설의 근간을 이룰 단절과 차별, 소외 등에 대한 테마를 주로 다루기 시작한다.

1982년부터 에벨리오 로세로의 문학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시작한다. 그 해에 『구두를 벗은 트럼펫 연주자와 갓 잠들기 전에 읽는 단편선』으로 멕시코에서 ‘네차우알꼬요플’ 단편문학상을 받는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작가는 에로티즘과 폭력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혼용하는 작품의 기초를 뚜렷이 유지하고 있다. 그 이후 3부작 소설 『고독한 마떼오』(1984), 『홀리아나가 보고 있다』(1986), 『피방화자』(1988)를 완성하고, 『피방화자』로 1988년부터 1992년 사이 발간된 최고의 소설에게 주어지는 제2회 ‘고메스 발테라마’상을 수상한다. 1998년 발간된 『가장 긴 모퉁이』에서는 농촌의 거친 삶을 피해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의 비인간적 삶의 모습을 투영한다. 그는 아동문학과 청소년문학, 단편과 장편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하여 늘 새로운 독자층을 영입하는 데 성공을 거둔다.

에벨리오 로세로는 주로 콜롬비아의 부조리한 현대사를 고발한다. 그의 대표작 『군대들』(Los ejércitos)도 콜롬비아의 광기어린 현대사를 들추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이 소설에서 폭력과 전쟁을 야기하는 개인과 집단의 욕망과 광기가 어떻게 분출되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헤치려 노력한다. 특히, 콜롬비아 정치, 경제 시스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장집단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비이성적 사회구조의 실체를 고발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성의 황폐화, 부조리, 내적 갈등,

인간 존엄의 상실 문제도 주목한다. 즉,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비인간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작가의식뿐 아니라, 인간 궁극의 가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에벨리오 로세로의 작품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이유이며,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가 연구 목표로 잡은 『군대들』은 2006년 출간되자마자 이베로아메리카 ‘푸스켓스 출판사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2008년 한 해 동안 영어로 번역 출간된 해외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선정한 ‘최우수 외국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는 세계적 작가로서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인디펜던트> 외국문학상 심사위원 중 한 명인 바이어트는 이 소설이 “인간의 삶이 전쟁에 의해 어떻게 갈기갈기 찢겨져나갔는지를 이야기해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조건에 대한 이해도 더해주고 있다”¹⁾고 평가한다. 작가 로세로가 『군대들』에서 콜롬비아 내부 갈등의 결과로 수십 년 간 지속된 잔혹한 현실을 기억과 망각의 순환 속에서 체화해서 서사화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에벨리오 로세로의 작품 『군대들』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작품이 단순히 문학상을 수상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작품은 콜롬비아에 만연된 사회적 문제와 그로 인한 민중의 고통을 세계에 알리면서 문학과 인권과의 관계에 대한 담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²⁾

우리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에벨리오 로세로가 그의 대표작 『군대들』에서 각종 폭력과 전쟁에 노출된 콜롬비아의 어두운 역사를 어떻게 집단적 기억을 통해 되살려냈으며, 궁극적으로 어떤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로세로가 콜롬비아의 각종 폭력적 사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각성을 촉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1) Alison Flood, “Colombian Civil War Story Wins *Independent Foreign Fiction Prize*”. *The Guardian*, Mayo 2009, p.19.

2) Carlos Gardeazábal Bravo, “Derechos humanos y corporeidad de “Los ejércitos” de Evelio Rosero”. en *Chasqui*, Vol.46, 1, Mayo de 2017, p.139.

II. 콜롬비아 폭력의 역사와 갈등 구조

콜롬비아는 독립 이후 자유와 보수 양당 간의 대립이 극심하였고 그로 인한 폭력의 역사가 지속되었다. 특히 1948년에는 민중 지도자 가이판의 암살로 인해 ‘라 비올렌시아’(1948~1958)라는 정치폭력 시대를 맞이한다. 이 기간 동안 약 20~30만 명이 사망했고 국가 산업시설은 거의 황폐화되었다. 이후 양당의 합의하에 국민연대(Frente Nacional, 1958~1974)를 형성한다. 이 연대는 두 정파 간 타협의 산물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을 지연시켰고, 좌익반군 게릴라와 우익 민병대를 탄생시켰으며, 마약과 폭력이 뿌리내리게 하였다. 콜롬비아의 게릴라, 준군사집단, 마약 마피아들의 주 수입원은 마약 밀매 자금이었다. 마약 거래 수익은 “콜롬비아 통화의 평가절상을 가져왔고, 농작물과 산업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콜롬비아 경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³⁾를 빚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다양한 무장단체들이 창설된다.⁴⁾ 이들은 기존 사회질서를 보호하려는 정부와 군부조직에 혁명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을 지닌 게릴라 조직이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우익 민병대가 세력을 떨친다. 이들은 극우집단으로 좌익반군 게릴라 조직에 대항하는 정부군을 돕기 위해 창설된 군사조직이다. 90년대에는 이들이 콜롬비아연합자위단(Autodefensas Unidas de Colombia, AUC)으로 발전한다. 이 집단은 주로 농민, 축산업자, 농장주, 소상공인들로 구성되었고 기존 게릴라 집단에 대한 자위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군부와 경찰 등 정부 측 요인과 정치권 인사들이 연결되어있다. 이들은 스스로 정의실현과 자구책을 위해 창설되었지만 중국에는 이들이 대량학살과 강제이주에 대한 공포를 대중들에게 심어주는 갈등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무장그룹이 마약카르텔과 연결되기도 했다.

3) 찰스 버키스트, 「비교역사학적 관점에서 본 콜롬비아의 폭력」, 이성훈 엮음, 『변화하는 콜롬비아』, 한울아카데미, 2015, p.306.

4) 1962년에 ELN(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 1966년에 FARC(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1970년에 M-19(Movimiento 19 de Abril), 1974년에 EPL(Ejército Popular de Liberación)이 창설된다.

메데인 카르텔과 깔리 카르텔로 대표되는 마약조직은 1970년대 초기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국가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마피아 조직이 빠른 세력 확장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시작한다. 빠블로 에스꼬바르가 이끄는 메데인 카르텔은 가장 폭력적이었고 깔리 카르텔보다 더 강력한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마약 카르텔은 “암살자들과 변호사들을 조화롭게 연결시켜주는 법을 익히고, ‘돈 아니면 납’이라는 정책과 공포, 법률만능주의를 통해 관료와 정치인들을 굴복시켰다.”⁵⁾

1990년대 들어 마약 카르텔의 경제적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무력 갈등도 심화된다. 갈등은 주로 마약 재배, 가공, 유통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이는 지역 패권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반드시 마약조직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폭력의 양상은 자연스럽게 게릴라, 준군사조직, 마약조직과 정치가들과의 합종연횡을 가능케 하였다. 이런 연합관계를 통해 가장 이득을 본 집단은 준군사조직과 게릴라집단이다. 그동안 치열한 접전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폭력 주체 간 전략적 제휴는 콜롬비아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우선 극우 준군사조직과 마약 카르텔과의 협력이 강화된다. 이 동맹은 초기에는 게릴라와 공산당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했으나 점차 폭력이 확산되고 증가한다. 좌익인사뿐 아니라 무고한 농민, 법관, 기자, 정치인도 살해하기에 이른다.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의 협력관계도 이루어진다. 정부군은 준군사조직의 작전을 후방에서 도와주고 그들의 성장을 눈감아주었다. 제도권 인사들과 마약조직과의 동맹도 지속된다. 제도권 인사들은 사면 등 많은 사법적 편의를 봐주고 자금 세탁에도 도움을 준다.⁶⁾

이렇게 되니 폭력사건의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폭력의 희생자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오로지 폭력에서 멀어지기를 원한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일수록 이런 현

5) M. Palacios, *Violencia Pública en Colombia, 1958-2010*, Bogotá: Fondo de Cultura Económica, 2012, p.117.

6) Carlos Vásquez Córtes, y Nhora Constanza Zapata Torres, *De las víctimas reales a las ficcionales en la novela <Los Ejércitos> de Evelio José Rosero*, Universidad del Valle, Cali, 2016, pp.27-28.

상이 심하다. 주민들에게는 그들이 게릴라이건 준군사조직이건 마약밀매조직이건 상관없다. 서로 다른 폭력의 주역들이 지배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우월적 지배력을 가진 집단이 원하는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콜롬비아 남부와 남동부에서는 게릴라들이 “주류 판매, 토지 소유, 혼인 분쟁까지 해결해주고 세금을 거둬들였다.”⁷⁾는 기억을 진술한다.

주민들은 상대편에 의해 종속적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이쪽 혹은 저쪽 편에 설 수밖에 없는 힘없는 주민들만 피해자가 되는 구조다. 작품 『군대들』에 나타난 주민들의 기억에도 어느 쪽이든 폭력의 주체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사실은 “이쪽 편, 저쪽 편, 아님 그쪽 편,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누구든 다 똑 같은 놈들인데.”⁸⁾ 라고 일갈하는 이스마엘에 의해 명확히 나타난다.

게릴라단체들로부터 농촌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구실로 창설된 우익 준군사조직은 게릴라단체와 마찬가지로 불법 마약재배와 유통을 주요 자금원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된다. 게다가 이런 새로운 무장단체의 출현은 무력집단 간 경쟁을 부추기고 갈등을 심화시켜 인권을 유린하는 테러가 증가한다. 폭력의 종류도 살인, 납치, 대학살, 성폭행, 강제이주 등 다양하며, 특히 민간인들의 상당한 희생을 유발한다. 『군대들』에서는 희생자들의 고통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다양한 무장집단이 벌인 각종 폭력을 모두 형상화하고 있다.

1998년 대통령이 된 빠스뜨라나는 FARC과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였고 우리베(2002-2010)의 뒤를 이은 산토스(2010-2018)정권 동안에 대화의 결실을 맺는다. 산토스 대통령은 2015년 9월 23일 FARC과 협정에 합의함으로써 평화협정의 이정표를 세운다. 이는 약 50년 동안 이어진 콜롬비아 폭력의 역사를 마무리 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FARC과의 최종 평화협정은 2016년 11월 24일 서명함으로써 콜롬비아 폭력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

7) María Jimena Duzán, *Crónicas que matan*. Bogotá: Tercer Mundo Editores, 1993, p.75.

8) Evelio José Rosero, *Los Ejércitos*, México: Editorial Tusquets, 2014, p.110. 이후 본문에 해당 쪽수만 기입할 것임.

었다.⁹⁾

우리가 살펴볼 작품 『군대들』에서는 최종 평화협정이 완결되기 전까지 콜롬비아 전역에서 펼쳐진 각종 폭력사태를 형상화하면서 비판적 전망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에벨리오 로세로가 에로티즘과 폭력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어떻게 혼용하였는지 살펴보자.

Ⅲ. 에로티즘에서 폭력의 기억으로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산 호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화자 이스마엘 빠소스에 의해 이야기된다. 그는 교수로 정년퇴직한 70세의 인물이다. 부인 오펜리아는 교사출신으로 산 비센테에서 40년 전에 이스마엘을 만났다. 이스마엘은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사물을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로 인해 기쁨을 느낀다. 그가 주로 쳐다보는 대상은 여자다. 그것도 숨어서 엿보는 것을 좋아한다. 성적 환상을 즐기는 일종의 관음증이다.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문고리를 통해서, 때로는 문틈으로 혹은 거울이나 카메라 등을 통해 훑쳐보기도 한다. 때로는 들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의 성적 흥분상태를 고조시키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숨지도 않고 여자를 훑쳐보기 위해 꾸구리고 앉거나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여자를 훑쳐보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기도 하고 여자의 남편이 나타나도 개의치 않는다.

이스마엘의 훑쳐보기는 순진한 이상성욕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 모습은 훑쳐보기의 대상인 헤랄디나와 그의 남편도 인정할 정도로 악의가 없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반란군의 개입으로 공포가 지배하는 마을에서 일상을 벗어나고픈 일탈행위 정도로 여길 뿐이다. 이스마엘의 관음증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아내도 이미 알고 있고 그의 행동을 인정할 정도다. 오펜리아는 이스마엘을 “잠자고, 훑쳐보고, 또 다시 잠자는 사람”(57)이라고 규정짓는다.

그러나 훑쳐보기는 오펜리아가 말한 것처럼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행동이

9) María Jimena Duzán, *op.cit.*, pp.21-22.

라고 할 수 없다. 이스마엘의 훔쳐보기는 욕망이 주입된 부적절한 행동이며 심지어 무력감마저 품고 있다. 그나마 이스마엘 자신이 말한 대로 “늙은 얼굴에, 미래도 없고, 노년의 신성함”(17)이 헤랄디나와 그의 남편 브라질 남자를 안심시켰고, 젊은이였다면 불가능했을 헤랄디나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던 것이다. 오펠리아는 이런 남편의 모습에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하지만 걱정이 많다. 그러나 이내 체념하고 만다.

교수는 옆집 여인을 음탕하게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훔쳐보기는 억눌린 일상에서의 탈출이고 숨 막히는 현실에서의 도피 수단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집과 마을은 교수에게는 즐겁고 유쾌하며 평온한 공간이었다.

그 마을에 폭력이 찾아든다. 폭력은 어느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찾아오고 마을 전체를 불안하게 만든다.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그들을 집에 틀어박히게 만든다. 마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폭력사건은 이스마엘 교수의 아내 오펠리아의 실종사건이다. 교수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내를 수소문한다. 그러면서 산 호세 마을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병사들의 존재도 접하게 된다. 통행검열도 실시되는 등 마을에 폭력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스며드는 것을 체득한다. 결국 주민들은 자신해서 마을을 떠나거나 강제이주 당한다. 산 호세 마을은 졸지에 낙원에서 폭력이 넘치는 마을로 변한다.

이스마엘은 실종된 부인을 수소문하러 온 마을을 배회한 후, 어느 날 집에 돌아오지만 그의 집도 그의 옆집도 문이 닫혀있다. 전과 같은 안온하고 평화로운 집이 아니다. 헤랄디나의 남편인 브라질 남자 에우세비오도 실종된다. 교수는 비로소 아내 말고 다른 사람들도 실종되고 마을에 군인들이 출현하는 것을 목격한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모두 집에 갇혀 지내고 있다. 이스마엘은 마을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마을에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다.(102)

작품에서 집은 교수의 아내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집은 실종된 아내를 회상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교수는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곤 한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헤랄디나의 집을 들른다. 자신의 집처럼 폐허가 된 그녀의 집을 보기 위해서다. 교수는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헤랄디나의 나체 시신을 보게 된다.(202) 충격적인 장면이다.

죽은 헤랄디나를 겁탈하려고 줄을 서있는 병사들의 얼굴에서 이스마엘이 본 것은 탐욕과 공포다. 그들은 모두가 각자의 세계에 빠져 게걸스럽게 침을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마엘은 “저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자문해본다. 내 모습을 거울로 본다면 저들보다 더 할 것이다.”(203) 라고 생각한다. 헤랄디나가 병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순간에 이스마엘도 어쩔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그 사건에 개입하여 관계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매우 역설적이다. 하필 섹스의 대상이 평소 자신이 흠모했던 여성이며 이미 죽은 시신이란 말인가. 모든 인간적 도덕적 가치가 훼손된 상태이며 야만의 극한을 보여주는 장면이다.(201-203) 헤랄디나에 대한 시신간음은 무장단체의 비인간성과 폭력의 비이성성을 고발하는 은유적 표현이다.¹⁰⁾ 시신간음은 “생명 중시사상, 삶에 대한 경외감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¹¹⁾ 헤랄디나의 죽음과 반복적인 폭력은 현 콜롬비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다양한 ‘군대들’에 의해 인륜과 도덕적 가치도 없는 사회가 되고 만 콜롬비아 사회를 개탄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동시에 이스마엘 교수의 배회가 끝난다. 헤랄디나의 나체 시신을 본 것이 마지막 발걸음이었다. 이 장면은 주인공이 처음부터 누렸던 행복으로 가득 찬 전원적 공간이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개인적 관심사보다는 집단적 관심사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이기도 하다. 소설 초반부터 그려지던 행복의 마을 산 호세는 점차 폭력의 희생지가 되었고, 주민들의 감성도 바뀌어간다. “평화는 공포로, 에로티즘은 폭력으로, 삶은 죽음”¹²⁾으로 변한다. 유린당하는 헤랄디나의 모습은 파멸한 마을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품 『군대들』을 폭력의 상황이나 기술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흐름을 중심으로 분석한 비센테 빠디아 차싱은 이 소설이 혼란, 불안, 두려

10) Javier Andrés Gómez, *El espacio narrativo en tres novelas de Evelio José Rosero*, Medellín: Universidad EAFIT, 2013, p.70.

11) Jhon Edilson Fernández Escobar, *Desasosiego en Los Ejércitos de Evelio Rosero*, Univ. del Quindío, junio de 2014, p.60.

12) Ivan Vicente Padilla Chasing, “*Los Ejércitos: Novela del miedo, la incertidumbre y la desesperanza*”, en *Literatura: teoría, historia, crítica*, Vol. 14, No.1, ene-jun. de 2012, p.144.

움, 초조, 두려움, 절망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¹³⁾ 그래서 “산 호세 주민들은 혼란과 불확실 세계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전쟁에 대한 집단적 기억만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¹⁴⁾고 언급한다. 이스마엘 교수의 관음증적 병리현상도 현실에 대한 불안과 혼란, 절망의 결과적 표출로 보인다. 그에게 있어서 훔쳐보기는 “전쟁의 외중에 내적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일종의 오아시스 역할”¹⁵⁾을 한다. 그렇다면 이스마엘 교수를 이토록 내면의 세계에 침잠하게 만들고 관음증에 빠지게 만든 사회적 불안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IV. 집단적 기억으로 되살린 역사적 현실

1. 폭력에 대한 기억의 재생

작품에서 이스마엘 교수는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하는 중심인물이다. 그는 욕망과 환상에 빠진 개인적 욕망과 당시 폭력적 현실에 대한 집단적 감정을 동시에 드러낸다. 그런데 작가는 에로티즘이라는 이스마엘의 사적 욕망과 전쟁이라는 공적 시각 중에서 일반인들과 관계있는 공공의 일상에 대한 시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스마엘 개인의 감정의 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긴 하지만 보다 넓은 사회적 구조를 바라볼 수 있는 공적 시각에 우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소설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가 로세로는 에로티즘이 전쟁으로, 삶이 죽음으로 변화가는 과정의 장면 전환을 자연스럽게 구현한다. 예를 들어 소설 초반에 그라시엘라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과거의 교회폭발 사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¹²⁾ 아름다운 여인을 묘사하다가 갑자기 전쟁의 순간으로 넘어가는 장면 전환은 전쟁의 참혹함을 극대화하려는 작가의 전

13) *Ibid.*, p.123.

14) *Ibid.*

15) *Ibid.*, p.126.

략이다.¹⁶⁾ 교회 미사 시간에 폭탄이 터졌다는 점도 독자에게 충격을 주지만, 더 당혹스러운 것은 공격의 주체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주인공과 주민들은 자신들을 공격한 군대가 게릴라인지, 준군사조직인지, 마약조직인지 혹은 정부군인지 알지 못한다. 이 점이 소설의 제목이 단수 『El ejército』가 아니라 복수인 『Los ejércitos』가 된 이유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그렇다면 마을은 어느 군대의 손에 넘어간 거지?”(110)라며 궁금증을 떨칠 수 없다. 그런데 아니러니하게도 바로 이 점이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주민들은 “이상하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에 의해 포위된 것 같은데, 바로 그래서 더 효과적이지.”(124)라고 불안감을 토로한다.

그래서 이 소설은 콜롬비아의 폭력 자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불안, 초조, 공포, 절망을 그린 소설이다. 소설은 시종일관 이런 개념을 저변에 깔고서 그런 불안과 절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설사 주민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두려움, 불안, 근심의 원인을 알아낼 수는 있다 하더라도 누가 주범인지, 누가 책임자인지는 밝혀내지 못한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은 결국 극심한 공포로 발전된다.

오죽 공포가 심하면 “마체페보다는 총을 맞아 죽는 게 훨씬 고마운 일이지.”(48)라는 비논리적인 희망을 얘기한다. 삶에 대한 자포자기도 일상이 되어 “난 상관없어. 길거리보다는 집에서 죽는 것이 낫지.”(103)라고 토로할 정도다.

소설에서 폭력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끌어내고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인물은 이스마엘 교수다. 그는 주로 과거의 회상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 온 폭

16) 소설 초반에 등장하는 교회 폭발사건은 콜롬비아 보하야(Bojayá)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형상화한 것이다. 보하야 학살사건은 2002년 5월 2일 초교 주에 위치한 보하야 성당 폭탄테러를 말한다. 당시 70여명의 사망자와 80여명의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했다. 무장 게릴라 FARC의 소행으로 밝혀졌으나 준군사조직 또한 책임이 있었다. 사건 발생 2주후에는 약 천 명에 달하는 베야비스마 주민들은 거의 모두 이웃 비히아 델 푸에르테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장소, 시간, 증언 등 저널리즘이 지니고 있는 진정성의 요소를 많이 배제한다. (Ministerio de Defensa Nacional, *Informe Anual Derechos Humanos y DIH 2000*, República de Colombia, Ministerio de Defensa Nacional, pp. 132-133. https://es.wikipedia.org/wiki/Masacre_de_Bojay%C3%A1 에서 재인용)(검색일: 2019.07.29.)

력의 그림자를 떠올린다. 이스마엘이 처음 살인 장면을 접한 것은 40년 전이다. 산 비센테의 버스 터미널에서 아내 오필리아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오필리아의 옆자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있던 똥보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이마에 총을 쏘 살해한 것이다. 살인자는 11살 내지 12살쯤 된 꼬마 ‘자객’이었다.(22) 아마도 그 아이는 살인의 이유를 몰랐을 것이다. 단지 용돈 몇 푼 때문에 누군가 시키는 대로 한 일일 것이다.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곳이 콜롬비아 사회다.

이스마엘의 제자 에밀리오 페레로에 대한 회상도 비극적 현실을 말해준다. 그는 항상 고독했는데, 채 스무 살도 안 되던 해에 골목에서 총탄을 맞고서 죽었다. 누가 왜 그랬는지는 알지도 못한 채 말이다. 갓 태어난 아이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스마엘은 어느 날 아침 쓰레기통에서 갓난아기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도 믿지 못했다. 그러나 갓난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이 십자성호를 그리면서 “네 토막을 냈다고. 이제 신은 없는 거지.”(35) 라고 말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총탄은 일상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주민 모두 죽음에 무더지게 된다.

다양한 사건을 마주한 이스마엘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일어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양심이어.”(37)라고 절규한다. 불안과 고통이 지배하는 나라에서의 삶은 결코 안정적일 수 없다. 이스마엘도 언젠가는 자신 또한 어느 군대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총을 쓰는 주체가 정부군이든, 게릴라이든, 준군사조직이든 누군가에게는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누가 총을 쏠지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안을 극대화한다.

불안의 ‘대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존재로부터 위협이 가해질지 사실상 알 수 없다.(…) 따라서 위협한 것이 어디서 다가오고 있는지 특정의 ‘이곳’이나 ‘저곳’은 불안에 가득 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 도리어 불안을 부르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의 특징이다.¹⁷⁾

17) Marin Heidegger, 『Seit und Zeit』, 1927. 사카이 다카시, 『폭력의 철학』, 김은

군인들은 신의 존재나 신앙도 부정한다. 이스마엘은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불안감과 고아의식이 더하다. 이스마엘은 엘 따블론에서 온 오르피스 신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는 준군사조직원들에게 고문 후 살해당했다. 준군사조직원들은 “신부의 고향을 태우고, 귀를 자르고 나서 해방신학을 찬양했다는 죄로 사형에 처했다.”(91) 종교인도 전쟁의 잔혹성을 피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전쟁의 불안감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무슨 일이지, 내게 무슨 일이 벌여질까?, 나는 죽게 될까?”(84)라는 질문을 수시로 하게 된다.

이스마엘이 불안해하던 대로 정부군도 민간인 학살의 주체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정부군은 게릴라와 친척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사살하기도 했다. 주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군의 베리오 대위가 선량한 민간인들을 보고 “저들이 게릴라다.”(96)라고 지목하며 학살하는 장면은 콜롬비아의 폭력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게 한다. 보호의 대상인 주민들은 정부군 장교의 출세욕과 분노를 발산하는 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 정부군의 권력남용은 윗선의 지시로 이루어졌기에 권력의 비호를 받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주민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전쟁에 대해 조언을 하고, 다른 마을에서 시민에게 발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령으로 예편할 거야.”(117)라고 말할 정도다.

이런 장면들은 콜롬비아 현실과 정확하게 부합된다. 대량학살, 집단사살, 폭탄공격, 무력투쟁 등은 콜롬비아 언론에서도 쉽게 접하는 단어들인데, 희생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일반인들이다. 그들은 어느 군대에게 자신이 당했는지 아마도 끝까지 알지 못할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폭력의 현실을 은유 그 이상으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산 호세는 폭력이 일상화된 콜롬비아의 농촌 마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폭력의 일상화와 강제이주

콜롬비아인들은 시대를 거치면서 폭력을 기억으로 혹은 일상적 삶의 일부로 인식해 왔다. 그들은 1948년 자유당의 가이판의 죽음과 그 이후 이어

주 율김, 산눈, 2006, pp.143-144에서 재인용.

진 보고파소 시절의 험악한 폭력사태를 대를 이어 전해 들으며 성장했다. 1970년대에는 게릴라로 인한 폭력이, 1980-90년대에는 마약테러로 인한 혼란이, 2000년대에는 준군사조직에 의한 무질서의 시대를 살아왔다. 그 동안 루이스 까를로스 갈란, 하이메 빠르도 레알과 같은 많은 국민적 정치지도자들을 잃었다.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일상이 되었다. 자신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든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일상을 지배했다.

작가 로세로가 이 작품에서 우려하는 것은 폭력이 습관화되는 현실이다. 폭력이 일상화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이 작품을 쓴 작가의 진심이다. 그래서 작가는 이 작품에서 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폭력을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문제시한다.¹⁸⁾

1980년부터 1995년 사이에 콜롬비아에서는 3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이 기간 동안 대량학살로 인한 희생자만 5천 명이 넘는다.¹⁹⁾ 테러, 납치, 살인, 성폭력, 강제이주 문제 등은 일상적인 일이어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저 폭력의 한 요소일 뿐이다.

등장인물들이 폭력을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로 여기는 일은 여기저기 나타난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계속 살아있다는 사실이지.”(162)라는 말이나, 혹은 “사람들은 마치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지.”(203)라는 말에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현실의 전쟁을 진짜 전쟁처럼 느끼지 못했던 이스마엘도 점차 “진짜 전쟁터”(163)가 되어가는 현실을 인정한다.

상시로 발생하는 납치도 주민들을 체념하게 만든다. 납치는 여러 군대들 간 전략의 일부이며 그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다. 콜롬비아에서 납치와 실종은 전쟁 중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무덤덤하다. 학교 경비원 파니는 지나가던 이스마엘에게 “선생님, 어젠가 오늘인가 또 누군가를 데려간 것 같아요.”(63)라고 누군가의 실종 소식을 아무 감정도 없이 전한

18) Liliana Ramírez, “Redspirando desde los asediados: una lectura de Los ejércitos de Rosero y Los vigilantes de Diamela Eltit”, en *Estudios de Literatura Colombiana*, No.33, julio-diciembre, 2013, p.110.

19) D. Pecaut, *Guerra contra la sociedad*, Bogotá: Editorial Planeta Colombiana.S.A., 2001, p.201.

다. 그만큼 일상화된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런 일을 조사하지 않으려 한다. 무관심이 상책이다. 교구신자들이 말하듯이, 지나친 관심은 죽음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65)

작가는 폭력이 일상화된 현실을 살펴보면서, 중앙 공권력의 부재도 꼬집는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국가의 대민 보호정책이 부족하다. 소설 말미에, 주민들은 게릴라 혹은 준군사조직이 도착할 것 같다는 경고를 받은 한편, 체베는 아내와 딸의 손가락이 든 봉투를 받는다. 협박을 받은 그는 도움을 청하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는 결국 경찰서로 향한다. 경찰서도 공격을 받아 텅 비어 있었다. 사정이 이러니 주민들은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공권력 부재상태에서 비이성적 폭력에 의해 사라지는 인물이 매일 증가한다. 처형의 이유도 필요 없다. 백지 명부를 들고 다니며 아무 이름이나 적으면 처형자 리스트에 오르는 것이다. 주민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192)에 불과할 뿐이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현 폭력 시국에 대해 전혀 개입할 계획도 없고 오히려 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정부는 “모든 일이 잘 통제되고 있다.”(160)는 소리만 되풀이하고, 대통령도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여기는 물론 이 나라에서는 전쟁이 없다.”(161)고 확인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델리아는 실종되지도 않은 것이며, 희생당한 수많은 주민들은 그냥 늙어 죽은 것에 불과하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부에 대해 이스마엘은 반항할 기력도 없고 방법도 없다. 그저 허무하게 웃을 뿐이다. “잠에서 깨지 않고 계속 잠만 잘 수 있다면”(161)하고 기원할 뿐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을을 떠나는 것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다. 급기야 이주 문제가 공론화된다. “시청을 옮기자”(115)는 주장과 “이주가 살 길이 아니다”(116)는 주장이 맞선다. 양 측이 의견은 달라도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한다.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강제 이주 문제는 결국 현실화된다. 그 결과 “2년 전만해도 90여 채의 가구가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마약판매상, 군대, 게릴라와 준군사조직원- 지금은 약 16채 정도만 남았을 뿐이다. 그들 중 많은 수는 죽었고, 나머지는 강제로 이주했다.”(67) 견잡을 수 없이 전개되는 미래에 대해 이스마엘 교수는 “지금부터 몇 집이 더 남게 될지 알 수가 있다, 과연 우리는 남을 수

있을까?”(67)하고 자문해 본다. 자유로운 미래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주민들에게는 신체적인 구속만이 고통이 아니다. 매일 총소리가 들리는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다는 절망과 불안이 가장 큰 고통인 것이다.

결국 산 호세는 “천천히 모든 것을 앗아가는 두려움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83)에 이르고 만다. 과거처럼 “자신도 모르게 해가지고 밤이 되고 해가 뜨기 시작하는 마을”(193)의 모습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마을이다. “비슷하지만 다른, 술책만이 넘치고, 망연자실한, 머리도 없고 심장도 없는”(189) 마을로 변해 버렸다. 산 호세는 버림받은 도시, 미래부재의 도시가 된 것이다.

V. San José, 미래 부재의 공간

산 호세 마을은 작가에 의해 창조된 공간이지만 콜롬비아와 라틴아메리카 대중의 실제 삶의 모습을 농축해 놓은 공간이기도 하다. 작품 속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들은 실제 콜롬비아인들이 마스크를 통해 접하는 소식과 유사하며 그로 인한 희생자들의 생생한 목격담이기도 하다.

산 호세 주변은 코카 재배지다. 언론에서는 그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124)에 해당한다고 기술했지만 그곳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요충지가 아니라 코카를 재배하고 상업화하기에 좋은 요충지로 여겨졌다. 실제 현실에서도 사회조직을 교란시키는 마약밀매조직이 필요로 한 것은 코카를 재배하기 위한 토지이며 이를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였다. 나중에는 이 지역에서 준군사조직과 패권을 다투게 된다. 준군사조직에 의해 자행된 대학살로 인한 “강제이주는 준군사조직으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게릴라에 의존하지 않고 코카인 생산의 수익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²⁰⁾

전략적 요충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다. 콜롬비아 어느 곳에

20) *Ibid.*, p.178.

나 있을 듯한 평화로운 마을에는 어느 새 불법의 씨앗이 뿌려진다. 결국 이 지역에 모든 군대가 몰려들고 주민들은 속절없이 죽어나가게 된 것이다.

로세로는 산 호세를 배경으로 전쟁의 무대를 잘 재창조해 낸다. 산 호세는 군대들에 의해 둘러싸이고 집들은 참호가 되거나 농경지로 변했다. 그는 “어제는 아빠르파도, 토리비오에서, 오늘은 산 호세에서, 내일은 또 어느 마을에서.”라고 다른 마을이 공격당한 사실을 암시한다. 이는 소설 속의 사건들과 콜롬비아 실제 역사와의 유사성을 보여주려는 작가의 전략이다. 아빠르파도는 안피오끼아 주에 실재하는 마을이다. 이곳에서 2005년 8명의 시민이 학살당했는데 그 중 두 명이 아이들이었다. 까우까 주에 위치한 토리비오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게릴라의 공격으로 수많은 군인, 경찰, 시민들이 살해된 바 있다.²¹⁾

작가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산 호세라는 마을을 죽음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이스마엘 교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현재 콜롬비아의 실정을 생생히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작가는 이외에도 보고따, 네이바, 킨디오, 뽀빠얀, 부가, 마니살레스 등 콜롬비아의 여러 지역을 언급한다. 이는 소설에서의 혼란이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려는 작가의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도 산 호세 마을을 외면한다. 레스메스 교수와 시장은 산 호세에 있는 참호를 걷어낼 방도를 구하러 보고따를 방문하나 헛수고였다. 정부 관계자로부터 “전쟁과 기아는 곧 적용될 것이다.”(124)라는 말만 듣고 올 뿐이다. 학교와 병원도 무장집단의 공격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현장이 무너지고, 병원에서는 환자와 의사마저도 사살하는 군대의 악행이 벌어진다. 주민들은 건강과 교육이라는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인 학교와 병원의 붕괴는 콜롬비아의 미래가 붕괴됨을 의미한다. 주민들이 신(神)마저도 마을을 버렸다고 생각할 즈음 실제로 사제도 마을에서 도망간다.

로세로는 작품에서 콜롬비아의 전통문화를 나타내는 종교적인 지시대상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산 호세라는 지명이다. 성인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이라 해도 과

21) Jhon Edilson Fernández Escobar, *op.cit.*, p.59.

언이 아닐 정도의 장소로 묘사된다.²²⁾ 교회마저 종교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 마을에서 터진 첫 번째 폭발사고가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상징적이다. 이 사건으로 주민들은 종교적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교회의 점령과 폭발은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의 첫 기억으로 잠재되어 있으며 이런 과거의 경험은 소설 전개 내내 증오, 두려움, 불안을 유발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

로세로는 전통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콜롬비아의 루비아노 사엔스 대주교와 아기예수 등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종교적 담론의 허무함과 신앙의 부재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갈등의 잔인함으로 인해 이미 종교적 본질과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로세로는 이외에도 산 호세 마을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신비의 성상 아이콘을 등장시킨다. 하지만 그 성상도 주민들의 욕구와 희망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교회의 권위를 해체하는 또 하나의 사건은 알보르노스 신부의 행실이다. 그는 블랑까라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가톨릭 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이런 상황은 산 호세에서 종교적 담론이 무의미함을 보여준다. 주민들의 고아 의식과 고립감, 불안감만 커갈 뿐이다. 산 호세에서는 신의 존재를 느끼기에는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참담하다. 신이 부재하는 곳이다. 신이 없는 곳에 미래나 희망이 있을 리 없다. 이스마엘도 “신이 우리와 뜻을 같이하지 않으시네.”(186)라고 신의 부재를 아쉬워한다.

산 호세에 미래와 희망이 없음을 가장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로드리고 뻬또와 그의 가족이다. 로드리고는 아내와 다섯 명의 어린 아이와 함께 희망을 품고 사는 젊은이다. 아이들 때문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꾼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산골 생활을 지속하길 원한다. 그는 산을 옮겨서 살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군대의 공격을 받는다. 그들은 다른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들이 태어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로드리고와 어린 아이들의 죽음은 산 호세의 미래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제 희망이 없다. 이스마엘이 말한 대로 “산 호세에서의 날들은 절망적”(193)이고, 산 호세는 이미 “죽은 도시”(123)다.

작가가 미래부재의 공간 산 호세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실제 콜롬비아가 처한 모습이다. 그러나 산 호세의 풍광이나 전쟁의 직접적 장면을

22) Iván Vicente Padilla Chasing, *op.cit.*, p.134.

그리지 않는다. 산 호세에 어른거리는 전쟁의 참혹함과 짙은 그림자에 주목한다. 누가 산 호세에 전쟁을 끌어들이었는지는 그에게 중요치 않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이며, 희망을 잃어가는 주민의 절망이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터져 나오는 국가의 침묵과 무관심이다. 바로 이 부분이 작가가 아파하며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다. 산 호세처럼 대중의 고통을 외면하는 통치자들이 지배하는 현재의 콜롬비아의 미래 또한 확신할 수 없다는 작가의 생각을 시사한다. 로세로는 이 작품을 통해 “나는 인본주의자이고, 작가이며, 나의 시대와 나의 나라의 관찰자”²³⁾라는 자신의 말을 충실히 실천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VI. 현실세계와의 일체를 위한 글쓰기 전략

로세로의 글은 리얼리스트적이다. 『군대들』도 작가의 경험에 바탕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나는 어머니가 사는 깔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들의 경험은 내가 쓰는 글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었다.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일화는 사실이다. 아내와 딸을 납치해간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 광장에서 ‘당신들은 게릴라’라는 이유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총을 쏘대는 대령. 진실된 일화들 주변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만들어 낸 이야기는 전혀 없다.²⁴⁾

그런 이유로 작가는 『군대들』에서 현실세계와 창조된 세계와의 일체감을 이루려 노력한다. 작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글쓰기 전략을 보여준다. 하나는 주변부 인물들의 시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논리적 시간구조를 사용하는 것이다.

23) Arturo Jiménez Enviado, “Escribo para exorcizar el dolor de la violencia: Evelio Rosero”, en *La Jornada*, domingo 6 de mayo de 2007. (검색일: 2019.07.10.)
<http://www.jornada.unam.mx/2007/05/06/index.php?section=cultura&article=a03n1cul>

24) *Ibid.*

이 작품은 대다수의 폭력소설과 달리 중심, 중앙의 존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를 주로 다룬다. 그래서 권력의 중심을 이루는 정부, 시장, 교회세력, 군대 등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주변부 타인들이 주로 드러난다. 등장인물도 많지 않다. 이스마엘 교수, 부인, 친구들, 이웃들이 전부다. 나머지는 산 호세에 사는 얼굴 없는 주민들이다. 물론 이들은 모두 폭력의 희생자들이다. 이름도 없다. 작가는 그들이 희생당하는 장면에서 주민들을 “몸뚱이들(cuerpos)”(179)이라고 지칭한다. 전쟁 후 마을에 남은 생존자들도 그렇게 불린다.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 폭력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폭력이 던지는 충격을 극대화하고, 중심부를 강조하는 지배적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꼬르페스는 이 작품을 “희생자의 시각으로 희생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무력 갈등의 문제점을 제시한 작품”²⁵⁾으로 평가한다.

작가는 콜롬비아인들이 보편적으로 겪은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현대 남성으로 이스마엘 교수를 상징하고 그의 생각과 움직임에 따라 폭력의 현실을 그려낸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뿐 아니라 오델리아를 찾으려고 마을 곳곳을 배회하며 본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그가 보는 것은 곧 우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설은 위기에 처한 마을의 모든 이야기를 그의 시선으로 독자에게 전달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마엘의 시선은 마을에서 자행되는 각종 폭력사태에 대한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이스마엘이 헤랄디나의 시신 강간 장면을 엿보는 장면에서는 이스마엘의 시선 자체가 폭력적이 되고 만다. 그래서 마벨 모라냐는 “작품이 전달하는 극심한 폭력과 끝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독자들 또한 관음증 환자로 변하고 말 것이다.”²⁶⁾라고 예견한다.

작가는 이스마엘 교수의 시선이 집단의 인식을 대변해줄기 기대한다. 작가는 이스마엘 교수와 산 호세라는 이름을 당대의 공식적인 담론과 맞서는 상징 내지 기호로 여기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161)고 거짓말을 하는 헤게모니적 관제 담론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

25) Carlos Vásquez Córtes y Nhora Constanza Zapata Torres, *op.cit.*, p.65.

26) Mabel Moraña, “Violencia, sublimidad y deseo en *Los Ejercitos*, de Evelio Rosero”, en *La escritura del límite*, Madrid: Iberoamericana/Vervuert, 2010, p.191.

고자 한다. 이런 끔찍한 일이 전쟁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전쟁이란 말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²⁷⁾

작가가 권력의 중심부 인물의 시선 대신 주변부 인물의 눈으로 사건 현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 것은 이야기의 진정성과 객관성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질서의 해체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는 시간의 사용에서도 드러난다.

마을 구성원 모두가 혼란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소설 속 시간 구성도 불명확하고 불확실하다. 이스마엘이 아내를 찾아 방황하는 동안 삶의 모습은 불안하고 불안정할 뿐이다. 이스마엘의 이런 모습은 시간에 대한 개념도 흐릿하게 만든다.²⁸⁾ 그래서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 더 이상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지금부터 시간은, 나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갈까?”(105)라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조차 불안해하는 독백을 자아낸다.

그러나 마을에 침공이 있는 지 3개월 후 이스마엘은 직접 날짜를 세기 시작한다. 시간을 대하는 이스마엘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그러나 혼자서 방안에 갇힌 이스마엘은 끝없이 밀려오는 고독감에 시간의 흐름을 잊고 망각에 빠진다. 날짜 세는 것도 잊고 산다. 시간을 기억 못하기 때문인지 식사하는 것도 잊는다.

시간에 대한 망각은 미래가 없음을 의미한다. 요일의 흐름도 무의미하다. 요일에 대한 확신도 없어서 “월요일?”(155), “목요일?”(157), “토요일?”(160), “수요일?”(161), “화요일?”(164)과 같이 의문문으로 표현된다. 이는 희망에 대한 불확실, 두려움, 삶의 무의미 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가가 선택한 기법이다. 고통에 찬 절망적 현실의 표현이다. 비센페 빠디아 차싱은 이런 시간 구성에 대해 “콜롬비아인들이 느끼는 깊은 비관주의와 우울감을 표현하고 있다”²⁹⁾고 말한다. 이 작품의 문학적 구성과 실제적 현실이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로드리게스는 “소설에서의 비이성적, 비논리적 시간구조는 독자에게 전통적 소설 읽기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며, “이

27) Ivan Vicente Padilla Chasing, *op.cit.*, p.138.

28) *Ibid.*, p.150.

29) *Ibid.*, p.139.

는 전쟁으로 인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들을 잃어버린 희생자들의 실제 경험을 독자들에게 전해주려는 작가의 의도”³⁰⁾라고 분석한다.

Ⅶ. 나가면서: 폭력적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혹은 회의주의적 전망

작품 『군대들』의 이야기가 콜롬비아의 폭력적 상황을 다 드러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벨리오 로세로가 작품 속에 창조한 산 호세에서의 폭력상은 콜롬비아의 어느 마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소설의 서사 담론은 콜롬비아 군대들에 의해 야기되는 폭력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이 작품에서 군대들은 인간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타락시키는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다.

『군대들』은 콜롬비아의 전쟁을 테마로 삼은 역사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폭력학’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 증언적 요소도 많이 보이고 인권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작가는 콜롬비아의 폭력적 사회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비판적 전망을 보여주고자 했다.

로세로는 『군대들』을 통해 “타락한 전쟁의 와중에서 비무장한 사람, 시민과 인간의 상황”³¹⁾을 잘 표현하고 있다. “소설이란 인간 존재이며 삶 그 자체”³²⁾라는 소설의 특성을 잘 보여준 작품이다. 또한 로세로가 소설을 씀에 있어 “어떤 군대로부터도 이념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³³⁾고 밝혔듯이, 이 소설에서도 어느 특정 집단이나 행위자 쪽에 서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작품은 명백하게 콜롬비아의 폭력을 비판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담론과는

30) Norma Donato Rodríguez, “Espacio y tiempo en crisis. Reseña de *Los Ejércitos*, de Evelio Rosero”, en *Dialéctica*, No.8, Buenos Aires, 2015, p.185.

31) *Ibid.*

32) *Ibid.*

33) Arturo Jiménez Enviado, *op.cit.*

거리가 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와 공포의 분위기에 짓눌린 민중의 감정과 한 맺힌 목소리를 전달한다.

소설에서 작가 로세로는 이스마엘 교수의 캐릭터를 통해 비판적 절망을 그려내는 회의주의적 전망을 보여준다. 이스마엘은 폭력의 일반화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마을의 혼란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는 전쟁의 부조리와 전쟁 속에서의 고아의식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군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는다면 아예 이름이 없다고 말해야겠다고 다짐한다.(203)

로세로의 회의주의는 콜롬비아의 폭력과 일반화된 사회 기능의 정지 등 올바른 현실인식에서 출발한다. 그에게 있어서 민주적 안녕은 콜롬비아 현실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로세로의 회의주의는 이성의 위기, 부조리한 폭력의 논리조차 기늠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우리가 전쟁 속에서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일상화된 우리의 무관심은 어디서 연유한 것인가를 질문한다. 그리고 그 습관적인 무관심을 강하게 비판한다.

로세로는 소설에서 전쟁의 실질적 영향을 그리려 한다. 작가는 전쟁 속에서 지속되어 온 삶의 형태와 방법을 통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탄생 전부터 폭력이 만연하고 인간의 죽음 이후에도 역시 폭력이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전쟁 속 삶의 참혹함을 강조한다.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교육, 의료, 종교의 황폐화는 미래와 희망이 없음을 보여준다. 삶에 대한 존중은 물론 죽음에 대한 존중도 완전 실종된 현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콜롬비아의 현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로세로는 콜롬비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발이나 비판만 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작가는 문학이 콜롬비아의 폭력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³⁴⁾ 문학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인간의 인식과 행동

34) Entrevista con Boyd Tonkin, “Colombiano Evelio Rosero gana premio británico de novela”, *Letralia*, N°210, 18.09.2009.

<http://www.letralia.com/210/0514rosero.htm> (검색일: 2019.07.20.)

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로세로는 “콜롬비아의 갈등 문제에 대해 푸닥거리를 하며 직접 맞서는 것”³⁵⁾이 이 작품의 집필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푸닥거리를 통해 독자는 물론 폭력으로 직·간접적인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도 치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소설 『군대들』은 갈등을 유발하는 무장집단의 행동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역사를 다시 기억할 것을 주문한다. 이런 주문은 비단 콜롬비아인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와 전 세계 문학 애호가들에게도 유효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로세로는 세계인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콜롬비아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촉구한다. “전 세계의 문제인 콜롬비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게릴라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중재에 힘써 줄 것”³⁶⁾을 호소한다. “콜롬비아의 폭력은 다른 나라에서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이며,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³⁷⁾ 전 세계인이 합심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35) Arturo Jiménez Enviado, *op.cit.*

36) *Ibid.*

37) *Ibid.*

■ 참고문헌

- 사카이 다카시, 『폭력의 철학』, 김은주 옮김, 산눈, 2006.
- 찰스 버키스트, “비교역사학적 관점에서 본 콜롬비아의 폭력”, 이성훈 엮음, 『변화하는 콜롬비아』, 한울아카데미, 2015.
- Andrés Gómez, Javier, *El espacio narrativo en tres novelas de Evelio José Rosero*, Medellín: Universidad EAFIT, 2013.
- Donato Rodríguez, Norma, “Espacio y tiempo en crisis. Reseña de Los Ejércitos, de Evelio Rosero”, en *Dialéctica*, No.8, Buenos Aires, 2015.
- Duzán, María Jimena, *Crónicas que matan*. Bogotá: Tercer Mundo Editores, 1993.
- Edilson Fernández Escobar, Jhon, *Desasosiego en Los Ejércitos de Evelio Rosero*, Univ. del Quindío, junio de 2014.
- Flood, Alison, “Colombian Civil War Story Wins Independent Foreign Fiction Prize”. *The Guardian*, Mayo 19, 2009.
- Gardeazábal Bravo, Carlos, “Derechos humanos y corporeidad de “Los ejércitos” de Evelio Rosero”. en *Chasqui*, Vol.46, 1, Mayo de 2017.
- Jiménez Enviado, Arturo, “Escribo para exorcizar el dolor de la violencia: Evelio Rosero”, en *La Jornada*, domingo 6 de mayo de 2007. (검색일: 2019.07.10.)
<http://www.jornada.unam.mx/2007/05/06/index.php?section=cultura&article=a03n1cul>
- Moraña, Mabel, “Violencia, sublimidad y deseo en *Los Ejércitos*, de Evelio Rosero”, en *La escritura del límite*, Madrid: Iberoamericana/Vervuert, 2010.
- Palacios, M, *Violencia Pública en Colombia, 1958-2010*, Bogotá: Fondo de Cultura Económica, 2012.
- Pecaut, D, *Guerra contra la sociedad*, 2001, Bogotá: Editorial Planeta Colombiana.S.A., p.201.
- Ramírez, Liliana, “Redspirando desde los asediados: una lectura de *Los ejércitos*

de Rosero y *Los vigilantes* de Diamela Eltit”, en *Estudios de Literatura Colombiana*, No.33, julio-diciembre, 2013.

Rosero, Evelio José, *Los Ejércitos*. México: Editorial Tusquets.. 2014.

Vásquez Córtes, Carlos, y Zapata Torres, Nhora Constanza, *De las víctimas reales a las ficcionales en la novela <Los Ejércitos> de Evelio José Rosero*, Universidad del Valle, Cali, 2016.

Vicente Padilla Chasing, Iván, “*Los Ejércitos*: Novela del miedo, la incertidumbre y la desesperanza”, en *Literatura: teoría, historia, crítica*, Vol. 14, No.1, ene-jun de 2012.

Entrevista con Boyd Tonkin, “Colombiano Evelio Rosero gana premio británico de novela”, *Letralia*, N°210, 18.09.2009.

<http://www.letralia.com/210/0514rosero.htm> (검색일: 2019.07.20.)

https://es.wikipedia.org/wiki/Masacre_de_Bojay%C3%A1 (검색일: 2019.07.29.)

❖ ABSTRACT

The collective memory and literary representation
in the work 『The armies』 of Evelio Rosero

Yoo, Wang-moo
Pai Chai University

Evelio Rosero has published works across various genres and criticized Colombian absurdist history. His masterpiece, 『The Armies』, also attempts to determine how the desires and madness of individuals and groups that cause violence and war are erupting and how this affects the masses. In particular, it criticizes the reality of the irrational social structure by showing the atrocities of the armed group that is the protagonist of the current violent social phenomenon in Colombia. However, as a writer, Rosero does not attempt to depict violence itself in this novel. Instead, he wants to focus on the influence of violence, which causes anxiety, fear, and despair in the people. He also emphasizes the human suffering caused by war and criticizes the public's indifference to violence and war. In addition, Rosero states concerns about the effects of a reality in which violence is habitual. Finally, he claims that we have to overcome our indifference to the armed group and memorialize the history of Colombia. Furthermore, he hopes that the world will join with Colombia to help solve this issue.

Key Words : The Colombian novel, The historical novel, Evelio Rosero,
『The armies』, The violence novel

■ 논문접수일 : 2019. 08. 10

■ 심사완료일 : 2019. 09. 01

■ 게재확정일 : 2019. 09. 03

